# 영혼만양이며 표현하는 한국 목

## 머리말

한옥은 말 그대로 '한국의 가옥'이다. 한옥은 보통 조선시대 양반가옥이며 알고 있지만 뿌리를 따지면 이보다는 더 오래되었고 그 뿌옇도 더 넓다.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환경, 문화, 사상이 종합적이며 작용한 결과 독특한 주거형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조선시대 들어서 정형화된 형식이며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가장 친 자연적 건축이며 다양한 역사가 모여 전화를 이룬다. 이를 있는 그대로의 한옥 모을 따르는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이며 새롭게 표현하고자 한다.

## 목표

한옥은 대들보, 서까래, 처마, 추녀, 대청, 주춧돌, 기와 외 많은 부분이며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역소들이 모여 온 하나를 이룬다. 이러한 어울림은 한국 멋의 정점에 있고 서양 건축물과는 다른 멋을 보여준다. 시중에 한국적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 수준의 것들이 다수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멋짐이며 한국 멋을 풀어내는 작가들이 있다.

하지후 작가는 국내에서 가장 무산을 나타내고 있는 가구디자이너 중 한명이며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적인 감성이며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전통 가구를 현대적이며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활, 한글 등 한국 역소를 가구에 더하기도 한다.



[그림1] 한글 벽걸이



[그림2] 활 의자

박철호 작가처럼 영혼과 철학적이며는 '색감과 맵시와 만나서 우현되는 것'. 이며, 탁월한 이 부아들이보다는 그 탁월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 대해 고민하고, 오랜 '맵시을 만드는 사람이며서 현대적 탁월 안에서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재어 하는 작가이다. 색상, 부피, 질감, 감정 등에 영혼을 입히고 맵시며 수평함이며서 재료와 색상과 부피, 질감과 감정을 제시한다. 그의 대표

적 작품인 기와 연작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양식인 기와지붕의 미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한옥지붕은 원통전이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진다. 이것을 한국의 기와와 의자의 만남을 통해 좌우하고 멋진 한옥의 미심을 연상화 하도록 한 것이다. 미아레 연작은 한복 소재인 억간자를 두 장 겹쳐서 나타나는 망사형태의 미아레 무양을 이용한 작품이다. 각수 조형에 팩스타일 예술이 녹아든 미심이다. 그의 작품은 조형의 원리적 측면들보다는 어떤 구체적 소재와 그 소재를 다루는 기술의 조합을 통한 구현이 곧 조형이라는 간단한 정의에 매료 되어있다.



[그림3] 미아레 연작



[그림4] 기와 벤치

나는 한국 멋의 중심을 한옥에서 느꼈다. 수많은 요소 중 기와, 처마와 추녀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성도 높은 부분 중 하나이다. 단정한 기와선들은 처마의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다, 절서정연하다, 안정감이 있다 등 다양한 느낌을 준다. 기와의 암, 수는 명양의 음양을 표현한 것이며 각각의 요소를 음과 양으로 대비시키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처마곡은 지붕의 모서리 부분으로 태양의 열주위복의 확보곡선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들려 있는 끝 선은 한옥 지붕 멋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형태를 변형, 재조합 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멋을 찾으려 한다.

## 맥스술

한옥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입체무양을 만들었다. 1차로 기와와 처마, 추녀를 이용해 방사형의 새로운 무양을 만들었고 2차로 3D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체화 시켰다. 3차로 곡면을 가진 형태에 입체무양을 교집합 시켜 만들어지는 조형은 표면 무양보다 다채로운 형태를 가진다. 여기에 시멘트, 레진, 금속, 물감스틸 등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여 나만의 한옥을 바라보는 새로운 멋짐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참고문헌


고려의 약재 및 약법 (한약의 발명국: 고려, 2005. 7. 10., 박종남 외)

한약 –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면서 "한약산업". (이림이면 이해하는 전통법)

식품 한약다운 점 – 만능한 것


박성희